

Roche-BASF, 비타민 담합 철퇴!

공정위, 6개 다국적기업에 과징금 39억원 ... 외국기업도 엄격규제

담합으로 국제가격을 높여 국내기업들에 피해를 입힌 6개 다국적 비타민 생산기업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3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Roche(스위스), BASF(독일), Aventis(프랑스), Solvay(네덜란드), Daiichi(일본), Eisai(일본) 등 국제 비타민 카르텔을 주도한 다국적 제약·화학기업에 대해 모두 311만8000달러, 원화로는 39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Roche가 19억5800만원, BASF 14억5000만원, Aventis 2억4500만원, Eisai 1억8400만원, Daiichi 7400만원, Solvay 500만원 등이다.

비타민 담합 시정조치 대상기업 및 과징금액

기업명	과징 금액
F. Hoffmann La-Roche Ltd.(스위스)	19억5800만원(155억9000달러)
BASF A.G.(독일)	14억5000만원(115억5000달러)
Aventis S.A.(프랑스, 구 Rhône-Poulenc S.A.)	2억4500만원(19억5000달러)
Eisai Co., Ltd.(일본)	1억8400만원(14억6000달러)
Daiichi Pharmaceutical Co., Ltd.(일본)	7400만원(5억9000달러)
Solvay Pharmaceuticals B.V.(네덜란드)	500만원(4000달러)

1999년 기준으로 약 32억6000만달러로 추정되는 전세계 비타민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시정조치 대상 6개 기업들은 1989년부터 1999년까지 비타민 A, E, B5, D3, Beta Carotene 등의 판매량을 할당하고 판매정보를 교환하면서 한 기업이 가격인상을 공표하면 나머지 기업들도 따라가는 형식으로 담합해 왔다.

한국은 2001년 약 7200만달러, 5674톤의 비타민이 수입되는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타민H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카르텔 기간 중 의약품, 식품, 화장품, 동물사료 등의 원료로 모두 1억8500만달러의 비타민이 수입됐다.

비타민 카르텔은 이미 미국 법무부가 1997년부터 조사를 통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어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료가 혐의 입증에 사용됐으며 조사 협력기업들에는 과징금이 경감됐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29>